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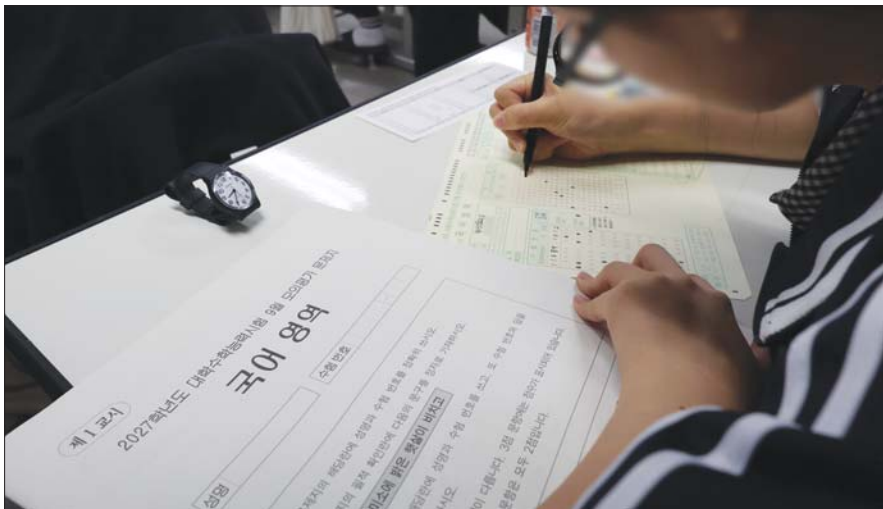
‘수능 가늠자’ 9월 모평, 영어 쉽고 국어·수학은 변별력 확보

국어·수학 6월 모평보다 어려워져
공통과목·고난도문항 변별력 확보
영어, 체감 난이도↓… 상위권 영향
평가원 “공교육 내 출제에 중점 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2일 치러진 가운데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수학은 공통과목과 주요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한 반면, 영어는 전반적인 난도가 낮아지면서 상위권 변별력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어, 6월보다 난해 ‘독서 문학’ 부담
국어영역은 쉽게 출제됐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한 수준으로, 추론적 사고와 선택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은 이날 국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고 올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9월 모의평가일인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에서 수험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지문의 정보량과 구조 자체는 크게 까다롭지 않았지만, 지문에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선택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추론해야 하는 문항을 공통·선택과목에 두루 배치한 것으로 봤다.

입시업계도 6월보다 체감 난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며 “쉽게

출제됐던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지난해 본수능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독서와 문학 가운데 문학에서 상대적으로 풀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으로 분석됐다. 임 대표는 기존 출제 방식과 다소 다른 유형이 출제돼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수학, 공통은 난도 ↑…선택은 평이
수학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지난해 수능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통과목의 체감 난도가 높아진 반면 선택과목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이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및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계산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념과 원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을 통해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수능보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늘어난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임 대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지난해 본수능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며 “공통 문항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과목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영어, 지난해 수능·6월보다 쉬워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

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유형 없이 기존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을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은 “전체적으로 적정 난이도였다”고 분석했다.

입시업계는 체감 난도가 더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봤다. 임 대표는 “매우 어려웠던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지난해 본수능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며 “어휘와 문장 구조, 소재, 지문 길이 모두 쉬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영어 1등급 비율은 4.1%, 지난해 수능은 3.1%였다. 종로학원은 이번 시험이 이보다 쉬워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일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영어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교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립대 옆 1800세대 대단지 들어선다

동대문구 전농동 신통기획 확정
지역·대학 잇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립대와 맞닿은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 최고 35층, 약 1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정비하고, 사업지의 25.7%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재배치해 공원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 재개발 신축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대상지는 전농로·광우로·왕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동측으로 서울시립대와 맞닿아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2%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에서 지역과 대학을 잇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릉지



를 고려한 테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대학가 특성을 반영한 주거·외부공간도 마련한다.

전농로34길과 접속하는 전농로에는 신호차로를 신설해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농로에는 가감속차로와 버스베이를 확보한다. 전농로34길과 전농로38길을 확폭해 양방 통행이 가능

하도록 하고 동측에는 폭 12m의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전농로34길 일부는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지하주차장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체도로로 결정한다. 도로 전 구간에는 양측 보도를 확보하고 전면공지와 연계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대로29길은 기존 생활동선을 유지하면서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한다.

대상지에는 과거 청량리역 철도관사 조성구역이 포함돼 있으며 국·공유지가 전체 사업지의 25.7%인 약 1만8658㎡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를 재배치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7을 적용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해 약 1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섬 개수 재정비… 197개로 확정

유인섬 40개·무인도서 157개 확정

인천시는 유인섬 40개와 무인도서 157개를 합쳐 지역 내 섬 현황을 197개로 확정했다. 종전 인천시 관리 통계는 전체 168개였으며 이 가운데 유인섬은 40개와 무인도서 128개였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인도서 통계는 152개로 서로 다른 수치를 보여 정책 자료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혼선이 있었다.

시가 통계 정비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기관별 수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오류 가능성이 확인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과 자체 관리 목록을 비교했다.

검증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지번 중복 여부를 비롯한 기본 관리정보를 살

폈고 이후 각 도서의 경위도 정보를 토대로 GIS 좌표를 정밀하게 대조해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기존 인천시 통계에서 누락됐던 무인도서 29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관리 목록에 포함했지만 해양수산부 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않은 도서 5개도 별도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도서에 대한 추가 등재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무인도서 157개 체계를 마련했다.

정비된 통계는 앞으로 섬 보전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해양자원과 관광자원 활용 계획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서도 정확도가 높아진 섬 현황 자료가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폴리텍대, ‘AI 직업교육’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네스코-유네북과 공동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이 2일 서울 용산 정수 캠퍼스에서 ‘2026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네스코-유네북(UNESCO-UNEVOC)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유네스코-유네북은 1992년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센터이다. 150여 개국 220여 개 센터에서 세계 직업기술 교육훈련 정책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 시대, 국경을 넘어 기술과 인재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AI 전환에 따른 산업·직무 변화에 대응해 미래 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은주 서울대 교수는 ‘인간과 AI의 협업’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AI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는 적정 신뢰 및 검증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훈 폴리텍대 기획이사는 “글로벌 고용·노동 전환과 폴리텍의 진화” 주제 발표에서 “AI 융합역량, 평생 직업교육, 취업·창업 및 지속 성장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韓해외긴급구호대, 네팔 도착…“사전답사 후 오늘 숙영지로 이동” /사진 뉴시스

▲美-이란 호르무즈 주도권 공방 격화…“보복에 보복” 고착화 우려

▲대만 국방부 “中 훈련, 대만 고립 초점…봉쇄 돌파 계획 구체화”

▲아이티서 강단에 납치된 한국인 2명 석방…“건강 양호”

▲대공격 예고인가…젤렌스키 “러 영공 사실상 폐쇄” 각국·항공사에 경고

▲크렘린 “11월 APEC 트럼프·시진핑·푸틴 3자 정상회담 가능성”